

제145회 해양경찰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결과

□ **일시·장소:** '26. 4. 14.(화) 16:30 ~ 17:50 /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 석 자**

○ 해양경찰위원회 : 김재봉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7명

○ 해양경찰청 :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담당과장 등 12명

□ **개최 결과:** 심의·의결 1건(원안의결 1), 보고 2건

【심의·의결 1건】

연번	형식	안 건 명	주 요 내 용	심의 결과	부서
1	위원회 예규	「해양경찰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정기회의 기준 변경 ※ 기존 매월 첫째·셋째주 월요일 → 변경 첫 번째·세 번째 수요일 • 그 밖의 자구 수정 등 	원안 의결	위원회

【보고 2건】

연번	안 건 명	부서
1	해양경찰청 주요 업무 보고	기획재정
2	해양경찰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회

□ 해양경찰청 주요 업무 보고

- 현재 ‘해양경찰교육원’이 있는데 새롭게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을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 여수에 있는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신임 경찰과 재직자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해양경찰 업무 특성상 실습 위주의 교육이 많이 필요함. 현재 여수 교육원 시설로는 한계가 있어 충남 당진에 인재개발원을 추가로 추진 중. 향후 여수 교육원은 신임 경찰관, 인재개발원은 재직자 교육기관으로 운영할 계획. 현재 예타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음.
-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등 관련, 해양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음. 한국리서치에서 작년에 조사한 결과에서 해양경찰청 국민신뢰도가 조금 하락했는데, 하는 일에 비해 홍보가 잘 안되는 부분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됨.
 - 열심히 하면 알아주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성과를 과장해서도 안되겠지만 일한만큼은 홍보를 잘 해서 국민들이 해양경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함.
 -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으나 저희들의 실책이나 미흡한 점들이 뉴스화될 때 그 파급효과가 큰 영향도 있음. 그런 실수나 국민이 불편하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다행스럽게도 해양경찰의 장비나 함정이 증가하고 있으나, 장비를 운영할 인력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장비 확충에 비하여 인력 확보 및 교육 준비 등 대비가 되고 있는지?
 - 함정 등 신규 장비가 도입될 때 행안부와 조율하여 필요 인력을 받고 있음. 전문 분야에 대한 인력은 특채로 채용하거나 공채 인력을 자체양성 교육을 거쳐 배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임. 위성 등 특수한 분야는 외부 전문가를 따로 채용함.
 - 항공기나 대형함정을 건조하게 되면 도입까지 3~4년정도의 시간이 걸리므로 준공년도에 맞춰서 행안부에 인력을 요청하고 정원이 확정되면 장비 도입시기에 맞춰 인수인력이 투입됨.
- 작년 예산 대비 인건비가 6.1% 증가했는데, 증액 사유?
 - 보수 증액 및 인력 증원이 반영되었음.
- 특수 분야 외에는 대졸자 등 제한없이 채용을 하는지?
 - 일반 공채 외에는 해양수산 쪽 경력이 있는 분들을 특채 형식으로 채용하고 있음. 해양경찰 업무 특성상 해양수산 관련 학교 또는 학과를 졸업한 분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음.
- 미래 기술 관련 중요한 것이 많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중국어선 단속 등에도 사람보다는 기술 위주로 대응하는 등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할텐데, 해양경찰은 어떤 전략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지?

- 대한민국 영토의 4.5배정도 되는 넓은 해역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MDA를 추진하고 있는데, 추후 MDA 관련하여 별도 안건으로 보고드리겠음. 다부처 사업으로 위성사업도 추진 중임.

○ 드론 관련 사업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

- 현재 드론은 운영 중이며 성능이 더 뛰어난 드론을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음. 앞으로 드론 없이는 국민의 높은 수준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해경청도 거기에 맞춰 준비하고 있음.

□ 「해양경찰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 제12조제2항 용어는 추후 재검토하기로 함.